

사이혼지 절

사이혼지 절은 오모리 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부와 영향력을 행사했던 구마가이 가문과 수세기 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 온 사찰입니다. 구마가이 가문은 광산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미 은광 지방의 중앙 행정을 담당했던 부교쇼(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관청)에서 재정, 계약, 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1600년대부터 권세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구마가이 가문은 수십 년 후 인근 이즈모 지방에서 정토진종의 사찰을 현재의 자리로 옮겨와 절의 이름을 사이혼보라 지었다가 후에 사이혼지로 고쳤습니다. 1867년에 재건된 본당은 구마가이 가문이 사이혼지 절에 마지막으로 기여한 건물입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목조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은 160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이 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산문은 원래 에도 시대(1603~1867년) 내내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던 사찰인 류쇼지 절 부지에 있던 것입니다. 류쇼지 절은 1923년 은광이 폐광되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1961년에 완전히 폐사되었습니다. 이후 사이혼지 절로 옮겨진 류쇼지 절의 역사적인 산문은 과거 은광이 번영했을 당시의 모습을 현재에 전하고 있습니다.